

제주도 허술한 예산책정·집행 '질타'

도의회 행사·보건복지·농수축위 결산심사
 보조금 반납·미집행 사업 등 불용액 도마에
 "예산 효율성 떨어져... 편성시 신중 기해야"

매년 보다 꼼꼼한 예산 집행 계획이 주문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를 향한 허술한 예산 책정과 집행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16일 열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의안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각각 제1차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제주도의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액은 6조2890억여원, 세출 결산액은 5조6304억여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586억여원이다. 이 중 이월액 3390억여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26억여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여원이다.
 이날 의회는 국고보조금 반납, 미집행사업 등 불용액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과도한 예산 확보 지장이 당부됐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사위 소관 일반회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1건·12억3100만원(전액 불용 7건·6억5900만원)이다. 농수축위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136건·72억500만원(전액 불용 33건·28억9200만원)이다.
 보건의안전위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업이 20건, 2년 연속 전액 불용사업도 6건이나 되면서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경 예산시 정리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중 2015년도(332억)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도 주문됐다.
 행사위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예산편성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토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잠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도마에 올랐다. 행사위에 따르면 특별회계 집행잔액 873억여원 중 지출잔액이 206억여원, 예비비가 588억여원으로 예비비 비중이 67.4%에 달한다. 본예산에 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사업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놔두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산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은범기자

임용시험 처리규정 근본 문제 도 감사위, 16일 교사 임용시험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점수 누락으로
 합격자 2차례 반복 이어
 2018년과 지난해에는
 평가점수와 다르게 '등록'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두 번이나 반복돼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엔 특정 응시자에게 평가된 점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주도교육청 임용시험 처리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후보자 선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며, 조사 결과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명·경고 1명·주의 1명)가 요구됐다.
 먼저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가 A씨(올해 2월 7일 오전)에서 B씨(2월 7일 오후)로, 다시 C씨(2월 13일)로 반복된 '2020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 등록하는 '실기시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코드를 '166'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255'로 잘못 입력, 실기시험 점수가 아예 누

락된 것이다. 여기에 수험생 11명 중 10명의 실기시험 선택종목(농구·축구·배구·배드민턴)의 점수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합격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다. 2020년 수학 과목 수업실연 평가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평가위원이 41.3점을 부여했는데도 나이스시스템에는 3점 많은 44.3점으로 등록했고, 2018년 국어 과목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이 12점을 매겼지만, 나이스시스템에는 0.8점 높은 12.8점을 입력한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교사 임용 2차 시험 성적 처리에 OMR 전산처리 방식 도입 및 교차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교육청은 10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는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등 시험 관련 기록물을 1년 만에 폐기,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검증 등 사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위원회는 ▷올해 중등교사 지구과목 과목 평가위원 5명이 응시생 7명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행위 ▷평가위원 명단 보안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시험 평가위원 위촉방식 불합리(15명이 5년 동안 5회 이상 위촉) 등의 문제를 발견,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형 2차 지원금 전도민 대상 지급 도, 시기·액수 검토 원희룡 지사 특별명령 발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도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이하 특별명령)'을 통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지사는 특별명령에서 "코로나19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돼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최소한의 생존의 위기만을 막자는 목표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또는 세대당 지급할지 여부는



철새도래지로 날아드는 황로 무리 16일 여름 철새인 황로 무리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로 날아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급 시기와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씩 총 12만 3000여가구에 400여억원 지급됐다.
 이에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별 또는 개인별 지급 등 지급 방식과 지급 액수, 제주에서 일하고 공

부하는 다른 지역(국외자 포함) 근로자나 유학생을 포함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날 원 지사는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또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

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위협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주문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도교육청 임용시험 공정성·신뢰도 대책 발표

제주도교육청은 16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신규 교사 임용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내에 '임용전담팀'을 신설해 초·중등 인사팀으로 분산됐던 신규교사 임용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이어 성적 입력 오류 최소화 및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시

험본부의 체점본부 내에 검증단을 별도로 운영, ▷체점표 검증 ▷성적 원데이터 이상 유무 ▷전산파일 확인 ▷최종 점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등 모든 과정을 교차 검증한다.
 또한 ▷2차 시험 방식의 개선 및 검증강화 방안 ▷실기평가 개선 방안 ▷출제본부 운영방식 및 보안강화 방안 등을 조만간 도출해 202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바다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2020. 04. 13 - 06. 26

공모요강

주제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 (아름다운 경관, 바다환경 훼손 현장 등 제주 바다와 관련된 작품이면 모두 가능)

응모기간 2020년 4월 13일 ~ 6월 26일 18:00까지

응모자격 누구나 가능

응모자격 그림부문 - 1인 1매
 사진부문 - 1인 3점 이내(중복 수상 불가)

출품료 없음

결과발표 2020년 7월 수상자 개별통지 및 제주매일 지면

공모분야

구분	그림부문		사진부문	
	초등부	일반부	초등부	일반부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규격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8절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4절지		개별용량 2mb 이상 원본사진 3000pixel이상(jpg)	

유의사항

- 출품작의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타 공모전 수상작, 유사작품, 합성/변형한 사진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 사진출품작은 공모전 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촬영한 것에 한함
-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됨
- 본 공모전에 응모 시 위 내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수상 수	
	그림부문	사진부문	그림부문	사진부문
대상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70만원 상당)	1	1
최우수상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50만원 상당)	4	2
우수상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6	3
장려상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10	5
입상	-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	30

※ 수상작은 제주바다사랑 공모전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접수안내

그림부문 작품 뒷면에 제목, 그린날짜, 이름, 연락처 기재 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진부문 제주매일 홈페이지(www.jejumail.net)에서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해 직접 온라인 접수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37 제주매일 사업부

E-mail abcd@jejumail.net

문의 064-747-8111

제주매일에서는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관식 고취를 위해 '제주바다'를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